

미국 시민의 경찰 형평성 및 다양성 만족도 연구

- 미래 한국 다문화사회 대비를 중심으로 -

2024. 1.

경찰청

박상현

【 목 차 】

I. 개요

- 1. 국외교육 개요 3
- 2. 훈련기관 개요 4

II. 연구방법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5
- 2. 연구방법론 6
- 3. 선행연구 검토 7

III. 연구 분석

- 1. 정량적 접근 및 분석 19
- 2. 정성적 접근 및 분석 29

IV. 연구 결과 및 토의

- 1. 연구 결과 43
- 2. 연구의 한계 45
-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46

V. 참고문헌

- 1. 국내 참고자료 50
- 2. 해외 참고자료 51

I. 개요

1. 국외교육 개요

1. 파견 국가 :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2. 교육기관명 : 세인트피터스 대학교(Saint Peter's University)

3. 교육 분야 : 경찰행정

4. 교육 기간 : 2023. 8. 27. ~ 2023. 12. 23.

2. 교육기관 개요

1. 주 소 : 2641 John F. Kennedy Blvd, Jersey City, New Jersey

2. 연락처 : +(01) 888-772-9933

3. 연혁 및 설립목적

- 1872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소재 27개 예수회 대학교 중 하나로 뉴저지에서는 유일한 예수회 대학이며, 오랜 역사와 예수회 전통을 바탕으로 카톨릭의 정체성과 다양한 학부 및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지식과 윤리를 함양하고, 봉사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국 북부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North Regional University' 에서 최고 가치를 가진 대학교 10위 중 6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우수대학으로 선정.

4. 학교 특징점

- 다양한 전공 및 교과목을 바탕으로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까지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뉴욕과 매우 인접한 지리적 특성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까지 지하철로 13분 이내)을 활용하여 인턴십, 취업 등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5. 수강 과목

- 본 과정은 College of Arts and Science 산하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학부의 일반 대학원과 동일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Intro to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pplied Research Method in Criminal Justice, Internship 등 총 3과목을 수강 및 수료하여 과목별 3학점씩 총 9학점을 취득.

II. 연구 방법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은 다양한 인종 및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일명 ‘멜팅팟’(Melting Pot)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미국 자체의 다문화 분위기 및 기조가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은 많은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이래 미국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와 문제를 경험했기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국 시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 특히 인종과 관련된 형평성 및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 및 감수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구조적 환경에 있다. 한국은 극심한 출산을 저하와 세계화의 중심에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과 학업을 위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직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의 현지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형평성 및 다양성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국인(이민자) 비율 및 인구수 등은 비교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의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할 시사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시민들의 치안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 특히 치안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2. 연구방법론

한국은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아직은 다문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및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머지않아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고자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미국의 치안, 특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형평성 만족도와 다양성 역량에 대한 미국 시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연구하고자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민들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만족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두 나라의 상황과 사회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 혐오 중지'(Stop Asian Hates),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 matters) 운동 등 다문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Tessler, Choi, & Gao, 2020; Watson, Turner, & Hines, 2020)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법 집행관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 측정보다는 해당 이슈, 운동,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더 초점을 맞춰 연구했기 때문에 실제 경찰을 포함한 미국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측면보다는 인종적·사회적 증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향이 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보다는 인종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 시민이 만족하는지, 혹은 만족하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는 경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미국의 다

문화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현상이나 시민들의 견해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치안(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미국 시민의 견해를 파악함으로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 전반적인 경찰활동 및 치안활동, 형평성, 다문화 감수성 및 수용역량 등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3. 선행 연구 검토

기존 연구문헌 검토

경찰의 인종에 대한 견해 및 인식은 경찰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치안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운전자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 경찰관의 인종적 편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Weitzer & Tuch, 2004)

또한 이러한 시민이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인식 및 시민의 경찰과의 협력 의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Nuño, 2018) 이 연구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와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경찰에 협조하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신뢰와 복종 의무는 경찰의 정당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Nuño, 2018) 즉, 얼마나 경찰에 대해 정당성을 느끼느냐에 따라 경찰에 협력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연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 응답자는 백인 응답자보다 경찰을 합법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경찰에 협조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uño, 2018)

특히 히스패닉 응답자들은 경찰이 대중과의 상호작용에서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존중한다고 믿는 경향이 낮았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백인 응답자와 히스패닉계 응답자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인 및 히스패닉계 두 응답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경찰과 마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아마 두 경우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인종·민족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이의 관계는 경찰의 공정성 및 존중의 인식과 같은 경찰이 시민들 대할 때 처우에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n, Luo & Nielson, 2022).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이 경찰 처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할 가능성이 백인 주민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평등한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관이 시민들 대하는 태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법 집행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연구는 장래에 경찰관 및 법집행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특히 히스패닉계 인종적 배경을 가진 대학교 형사법 관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광범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미국의 한 남서부 지역 대학의 형사사법학과 학생 15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 (Todak, Huff, & James 2018). 이 연구는 특히 다음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답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주요 설문조사 질문으로는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업무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시민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직장 상사로부터 대우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예비 경찰관들이 경찰 기관 내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다양성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이 뽑은 장점으로 지역 사회 관계 및 신뢰 개선, 다양한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문화적 인식 및 감수성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거론하였다.

단점으로는 경찰서 내 잠재적 차별과 편견, 제도적 장벽과 자원 부족으로 인한 다양성 목적 달성에 대한 어려움, 오히려 소수인종 집단에 대한 우대 및 와 토큰주의(Tokenism, 사회적으로 소수인종집단의 일

부를 뽑아 구색만 맞추는 식의 정책적 관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Todak, Huff, & James 2018)

이 연구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들은 장래에 경찰관이 된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업무의 전반적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시민과 상사로부터 대우받는 방식, 일과 삶의 균형, 전반적인 업무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히스패닉 등 상대적으로 소수인종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과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반면, 백인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종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시민들에 대해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연구의 표본 샘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미국 남서부의 한 대학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상황에 이 연구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의 다양성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현직 경찰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즉, 이들은 장래에 경찰관이 될 예비 경찰관들이긴 했으나,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은 아니었다.

또다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흑인 거주자는 백인 거주자보다 불심검문 시 경찰의 무력 사용, 특히 수갑 채우기, 밀치기거나 붙잡기, 고함 지르기 등의 물리적 활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Smith, 2021) 또한 경제적 배경도 경찰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활동, 즉 소득과 관련, 이 연구와 관련에 대해 요약하자면, 월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흑인 남성과 흑인 거주자가 거리 불심검문 (Stop and Frisk) 중 경찰의 무력 사용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백인 남성,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백인 거주자, 35세 이상의 백인 거주자도 거리 검문 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의 무력 사용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경찰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인식이 순찰을 포함한 치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과 편견이 시민들에게 잠재적으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피해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 때 공정하게 시민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변수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류준혁, 2012)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모형(사회경제적 모형, 경찰 접촉 모형, 삶의 질 모형, 사회적 맥락 모형, 경찰 활동 모형)을 사용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결정 요인을 추정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 모델들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했다는 점과 한국의 수많은 도시 중의 한 곳인 대구 한곳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범죄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재두, 2018) 구체적으로는 범죄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이 경찰 신뢰도에 대한 시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범죄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 및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또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찰 기관이 범죄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반대로 경찰관들이 시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찰관으로서의 치안활동이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곽형곤,

2021) 결국 시민과 경찰관 모두 상호 믿음과 긍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경찰활동과 시민의 협조가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특수한 인종·민족 또는 이민자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Todak, Huff, & James 2018) 등에 집중된 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장점으로 보자면 보다 집중적으로 특별한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된 특성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체적인 미국 시민들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본 연구 역시 인종적 특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다. 각기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 인종적 특징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실험 참가자, 즉 응답자의 인종보다는 ‘미국 시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 혹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혹은 범죄학(Criminology)을 전공하였거나, 전공 중으로, 현재 범죄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거나,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비슷한 이유로 그들 중 일부는 장차 미국에서 경찰을 비롯한 사법 집행기관에서 직장을 갖길 희망하는 등 미국의 사법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들이 미국의 사법 체계와 시스템 및 경찰·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므로, 이들로부터 얻은 응답결과를 통해 장차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경찰·법집행기관의 문화 및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만일 이들이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법체계 및 경찰제도 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정도의 의견을 가졌다면,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졌을지, 반대로 유추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방향 선정

문헌고찰 결과, 국내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강지현, 2016)와 국내 거주 외국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장현성, 2019; 황의갑, 2013)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더니, 자국 거주 인구 및 이민자 비율이 훨씬 많은 미국과 국내 여건은 그 상황이 매우 달라 명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Chu & Song, 2007; Chu & Hung, 2010)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중국계 이민자에 한정되어 있어 미국 내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본 연구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시민의 견해와 더불어 미국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관해서도 함께 설문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전·현직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그러나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청(Bergen County Prosecutor's Offic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 A(익명 요청)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아마도 이곳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솔직한 대답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익명으로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마 다들 말을 아낄 것 같다.”

20여년 뉴저지주 주 경찰(New Jersey State Police)에서 근무하다가 세인트 피터스 대학교(Saint Peter's University)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 B(익명 요청) 역시 비슷한 견해였다.

“(경찰들에게 그런 의견을 묻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견 같다. 나라도 아마 솔직하게 내 의견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이들이 본 연구에 있어 직접적인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이 아니긴 하나, 이와 같은 전·현직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향성을 타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되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번 연구를 시작할 때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관련 정부 정책, 양국가의 상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연구 초기에서부터 양국 간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건국 초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포문을 열었던 미국의 현실이 현재 어떤 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와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는 방향을 찾는 식으로 연구 방향을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샘플링 전략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명확한 지리적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최소한 범죄학 및 범죄, 또는 사법체계, 법 집행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설문대상으로 삼고 싶었다.

그리하여 첫 번째로, 2023년 11월 16일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 범죄학회(ASC,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라는 특정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본 학회는 현대 범죄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에 의해 194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창설된 전통 있는 범죄학 학회로, 매년 정기학회(Annual Meeting)를 미국 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 78회째 학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이 형사사법 및 범죄학, 법학 등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에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응답자로 매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자가 수학 중인 세인트 피터스(Saint Peter's University)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인트 피터스 대학교가 소재한 저지시티(Jersey City)는 2023년 기준 인구가 268,578명이며, 가장 최근의 ACS(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인종 구성은 백인 32.6%, 아시아계 25.43%, 흑인 22.48%, 기타 인종 9.73% 등으로 매우 다양한 인종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 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유의미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설문 대상자 학생들 역시 이곳 대학에서 형사법 및 사법정의(Criminal Justice)를 전공하는 학부생들로서, 미국의 사법체계 및 경찰활동 등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졸업생들이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취업 등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설문 표본 집단을 불특정 한 집단이 아닌, 다소 특정된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아무래도 이들 집단이 일반적인 시각을 갖춘 미국 시민보다는 사법체계 및 경찰제도 등에 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 집단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지 및 여러 가지 여건 상 상대적으로 설문 대상이 많지 않아 본 연구의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당초 총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71장을 회수, 92.2%에 해당하는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응답률이 다소 높은 이유는 범죄학을 전공하여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관심이 있거나, 향후 범죄학 전문가 및 경찰 등 법집행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기에 보다 설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였다고 분석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3. 11.18. ~ 12. 1. 간 약 15일에 걸쳐 필라델피아 ASC 학회 현장 및 저지시티 세인트 피터스 대학교에서 이뤄졌다.

설문조사 방법 선택

설문조사는 온라인이 아닌 직접 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익명을 요청하더라도 직접 대면하여 설문 배경 등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는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항(Demographic Information)을 포함, 경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배치한 후, 이에 대한 척도 혹은 ‘예/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객관식 질문 외에도 주관식(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설문을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답변을 얻기 위해 양적 접근(Quantitative Study, 정량적 연구)과 질적 접근(Qualitative Study, 정성적 연구)을 모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

1.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시민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경찰 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에 만족하는가?
2. 시민들이 지역 경찰의 치안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만족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미국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연구 가설(Hypothesis)

1. 미국의 일부 다문화 및 소수인종 시민들은 지역 경찰의 경찰 활동의 형평성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시민들은 경찰관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3. 미국의 일부 다문화 및 소수인종 시민들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활동과 태도에 불공평함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설문조사 설계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미국 시민들이 지역 경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 사람이 한국경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치안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였다. 물론 한국 시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후 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도 추후에는 가능할 것이다.

치안과 경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두 곳 이상의 다른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결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범죄학학회(ASC) 및 저지시티 세인트 피터스 대학교 범죄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와 다인종주의(Multiracial)라는 개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인 형평성(Equity)과 다양성(Diversity)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심도 있게 설계하고 보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에는 형평성 만족도와 다양성 역량, 즉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형평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와 경찰관이 다양한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했다. 또한 다양성과 형평성에 대한 평가와 법 집행 기관에 전담할 수 있는 특별 부서가 있는 경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경찰과 소통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도 설문에 포함,

①경찰활동 중 형평성 관행에 관한 만족도, ②거주 지역 경찰과 상호활동을 하는 중에 안전함을 느끼는 정도, ③인종 및 인종적 배경과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끼는 정도, ④실제 경찰활동

중 공정하지 않거나 차별을 느끼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⑤실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설명해줄 수 있는지, ⑥거주 지역 경찰의 다양성 역량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⑦거주 지역 경찰이 다양성과 형평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⑧만약 그런 활동이 있다면 설명해줄 수 있는지, ⑨만약 거주 지역 경찰에 다양성을 반영한 부서가 있다면, 거주 지역 경찰에 더 적극적으로 범 죄 신고 등을 할 수 있을지, ⑩형평성과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어떠한 변화들을 거주 지역 경찰에서 기대하는지, ⑪거주 지역경찰과 형평성과 다양성 관련 대화나 포럼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⑫거주 지역경찰에 대해 전반적으로 형평성과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총 12문항에 걸쳐 질문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에는 이 중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8개 설문 문항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주요 데이터 수집 방법은 대면 설문조사로,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성별, 인종, 계층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여서 살고 있는 미국에 사는 시민들의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형평성과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연구주제로 삼은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란 국가 내에서도 다양성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건국 초기부터 자리 잡은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모두가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대해 모두 공평하다고 느끼거나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을 전제로, 단답형 질문을 포함, 개방형 질문을 통해 보다 인종, 나이 등의 종속변수가 경찰 형평성 및 다양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록 연구 설문 및 가설에서는 인종을 주된 종속변수로 삼고자 하였으나, 설문 응답자의 인종 외에도 나이, 성별 등이 이처럼 경찰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잠정적 전제가 있었으므로, 이들 개

인정보 및 인적 배경 등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①나이, ②성별, ③인종적 배경, ④거주 지역, ⑤출생(출신)국가, ⑥미국 체류자격, ⑦미국 거주 기간 등을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반면, 종속변수는 경찰과 치안의 형평성 및 다양성에 대한 설문 및 응답자의 답변 내용, 그 비율 등이다.

연구 방법의 한계

연구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한국의 인종 구성비와 미국의 인종 구성비가 전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비교 연구는 처음부터 연구 설계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경찰관들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필라델피아와 저지시티의 인구 구성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에는 서부나 중부 지역 등 보다 다양한 미국 지역 및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지역에서 인종 및 다문화 특색에 맞춰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 전체의 사회적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나 유사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개의 지역과 두 개의 샘플링 그룹을 계획했지만 성별, 연령, 인종 및 기타 독립 변수의 비중을 정확하게 나누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 결과를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가치 있고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표본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다 보니 보다 더 풍부한 표본을 채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욱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설문 참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 분석

1. 정량적 연구 및 분석

정량적 연구에 있어서는 아래의 8가지 질문을 포함, 총 12개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답변을 수렴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통계학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연령, 성별 등 독립변수와 시민들이 느끼는 형평성과 다양성 만족도 등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질문1. 성별과 지역 법 집행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지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의 상관관계

예상과 달리 인종적 특성과 형평성 및 다양성 역량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성별과 지역 경찰관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전감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2명을 제외한 69명의 응답자 전원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매우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함, 매우 안전함의 5가지 범주로 구성된 척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남성 응답자 28명 중 31명(46.4%)이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 41명 중 17명(41.5%)이 보통, 13명(31.7%)만이 안전하다고 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경찰관과의 상호작용에서 안전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카이 스퀘어 테스트는 0.034로 기준선인 0.05보다 낮았고, 크레이머 V 테스트는 0.342로 기준선인 0.15보다 높아 유의미하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구분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전체	
	매우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함	매우 안전함		
무응답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성별	남성	0 0.0%	4 14.3%	6 21.4%	13 46.4%	5 17.9%	28 100.0%
	여성	1 2.40%	4 9.80%	17 41.5%	13 31.70%	6 14.6%	41 100.0%
$\chi^2(p)$			16.656(<0.05)*				
Cramer's V(p)			0.342(<0.05)*				

p* < 0.05, p** < 0.01, p*** < 0.001

질문2. 연령과 법 집행 기관이 인종이나 민족 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시민을 대하는 지의 상관관계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이라는 독립변수는 이번 분석에서 매우 흥미로운 요소였으며,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본 연구의 단점으로 꼽히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경찰을 더 신뢰(Correia et al, 1996; 류준혁, 2012; 황의갑, 2013)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경찰을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에 따른 형평성, 즉 인종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경찰이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66.2%인 47명의 응답자가 경찰이 공평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31%인 22명의 응답자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69세 이하 응답자 전체가 경찰이 공평함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10대 응답자만 인종에 따른 형평성(공평함)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10대 응답자 12명 중 7명이 경찰이 인종적 형평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일반인보다는 범죄학 등 형사사법 및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지망생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2 참조)

(표 2)

구분	경찰이 인종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시민을 대하는가				총합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무응답	0 50.0%	0 0.0%	1 50.0%	1 50.0%	2 100.0%	
연령	19세 이하	0 0.0%	7 58.3%	5 41.7%	0 0.0%	12 100.0%
	20~29세	0 0.0%	10 40.0%	15 60.0%	0 0.0%	25 100.0%
	30~39세	0 0.0%	2 13.3%	13 60.0%	0 0.0%	15 100.0%
	40~49세	0 0.0%	1 12.5%	7 87.5%	0 0.0%	8 100.0%
	50~59세	1 14.3%	1 14.3%	5 71.4%	0 0.0%	7 100.0%
	60~69세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70세 이상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chi^2(p)$	56.359(<0.001)***				
	Cramer's V(p)	0.514(<0.001)***				

$p^* < 0.05$, $p^{**} < 0.01$, $p^{***} < 0.001$

질문3. 성별과 경찰이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상관관계

같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 응답자 41명 중 29명(70.7%)은 경찰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남성 응답자 28명 중 17명(60.7%)은 경찰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7%는 경찰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

며, 전체적으로 남녀 응답자 총 71명 중 47명(66.7%),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미국 경찰이 인종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카이 스퀘어 테스트와 크레이머 V 테스트를 한 결과, 두 결과 모두 각각 <.001로 매우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남성 및 여성 응답자가 각각 60.7% 및 70.7%에 해당하는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경찰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구분	경찰이 인종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시민을 대하는가				총합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성별	무응답	0 0.0%	0 0.0%	1 50.0%	1 50.0%	2 100.00%
	남성	1 3.6%	10 35.7%	17 60.7%	0 0.0%	28 100.00%
	여성	0 0.0%	12 29.3%	29 70.7%	0 0.0%	41 100.0%
	$\chi^2(p)$		37.230(<0.001)***			
	Cramer's V(p)		0.512(<0.001)***			

p* < 0.05, p** < 0.01, p*** < 0.001

한편 인종, 미국 체류 기간, 이민 신분(체류자격) 등이 인종과 관련한 경찰의 공정성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인종, 미국 체류 기간, 이민 신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71명 중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백인 응답자 32명 중 25명(78.1%)이 경찰이 인종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점이 인상적이다.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종적 비율을 보여준 흑인 응답자들은 최근 몇 년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는 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흑인 12명 중 7명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각각 58% 및 42%의 비율로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보였다.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는 각각 75%와 66.7%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는 71명 중 47명(66.2%)이 미국 경찰이 모든 인종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아래 표 4 참조)

(표 4)

Q3Ethnicity * Q9Equaltreatrace Crosstabulation

		Q9Equaltreatrace				
		0	Yes	No	3	Total
Q3Ethnicity 0	Count	0	2	0	1	3
	% within Q3Ethnicity	0.0%	66.7%	0.0%	33.3%	100.0%
Caucasian/White	Count	1	6	25	0	32
	% within Q3Ethnicity	3.1%	18.8%	78.1%	0.0%	100.0%
AfricanAmerican/Black	Count	0	7	5	0	12
	% within Q3Ethnicity	0.0%	58.3%	41.7%	0.0%	100.0%
Hispanic	Count	0	2	6	0	8
	% within Q3Ethnicity	0.0%	25.0%	75.0%	0.0%	100.0%
Asian	Count	0	3	6	0	9
	% within Q3Ethnicity	0.0%	33.3%	66.7%	0.0%	100.0%
Unspecified	Count	0	2	2	0	4
	% within Q3Ethnicity	0.0%	50.0%	50.0%	0.0%	100.0%
Undisclosed	Count	0	0	3	0	3
	% within Q3Ethnicity	0.0%	0.0%	100.0%	0.0%	100.0%
Total	Count	1	22	47	1	71
	% within Q3Ethnicity	1.4%	31.0%	66.2%	1.4%	100.0%

질문4. 연령과 경찰의 다양성 수용력에 대한 평가와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지역 경찰의 다양성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연령별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카이 스퀘어 테스트 및 크레이머 V 테스트 모두 임계값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찰의 다양성이 높다고 답하였다.

즉, 설문에서 20~29세 응답자의 28%가 경찰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0~59세 응답자도 비슷한 비율로 경찰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두 그룹이 경찰의 다양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연령대는 40~49세로, 응답자 8명 중 4명(50%)이 경찰의 다양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40대 응답자의 절반이 미국 경찰의 다양성 수용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는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보여진다. (표 5 참조)

(표 5)

구분	경찰의 다양성 수용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총합
	무응답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무응답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19세 이하	0 0.0%	0 0.0%	3 25.0%	6 50.0%	3 25.0%	0 0.0%	12 100.0%
20~29세	0 0.0%	1 4.0%	5 20.0%	10 40.0%	7 28.0%	2 8.0%	25 100.0%
30~39세	0 0.0%	0 0.0%	6 40.0%	6 40.0%	3 20.0%	0 0.0%	15 100.0%
40~49세	0 0.0%	4 50.0%	0 0.0%	3 37.5%	1 12.5%	0 0.0%	8 100.0%
50~59세	0 0.0%	1 14.3%	1 14.3%	3 42.9%	2 28.6%	0 0.0%	7 100.0%
60~69세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70세 이상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chi^2(p)$	104.140(<0.001)***						
Cramer's V(p)	0.542(<0.001)***						

$p^* < 0.05$, $p^{**} < 0.01$, $p^{***} < 0.001$

질문5. 연령과 경찰에 다양성 전담 부서 등 특별한 부서가 있다면 범죄를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에 대한 상관관계

응답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찰 다양성 부서에 범죄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20대 응답자의 92%가 경찰에 특별한 다양성 전담부서 등이 있을 경우 경찰 신고 등에 더 협조할 것이

라고 답하였고, 그다음으로는 10대 응답자의 83.3%가 그렇다고 답하여서, 연령이 낮을수록 경찰에 어느 정도 다양성이 담보될 경우, 경찰에 협조할 의향이 많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75%는 특별히 경찰신고를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질문4에서 40대 응답자가 경찰의 다양성 수용력에 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찰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경찰활동에 더욱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 6 참조)

(표 6)

구분	경찰에 다양성 전담부서가 있다면 경찰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인가			총합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1 50.0%	0 0.0%	1 50.0%	2 100.0%	
연령	19세 이하	0 0.0%	10 83.3%	2 16.7%	12 100.0%
	20~29세	0 0.0%	23 92.0%	2 8.0%	25 100.0%
	30~39세	1 6.7%	8 53.3%	6 40.0%	15 100.0%
	40~49세	0 0.0%	2 25.0%	6 75.0%	8 100.0%
	50~59세	0 0.0%	4 57.1%	3 42.9%	7 100.0%
	60~69세	0 0.0%	1 100.0%	0 0.0%	1 100.0%
	70세 이상	0 0.0%	1 100.0%	0 0.0%	1 100.0%
	$\chi^2(p)$		37.554(<0.001)***		
	Cramer's V(p)		0.514(<0.001)***		

$p^* < 0.05$, $p^{**} < 0.01$, $p^{***} < 0.001$

질문6. 성별과 경찰에 다양성 전담 부서 등 특별한 부서가 있다면 범 죄를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에 대한 상관관계

같은 질문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질문했을 때, 그 결과는 더욱 명확해졌는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조직에 다양성 전담 부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여성 전체 41명 중 32명(78%)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남성 전체 28명 중 17명(60.7%)만이 경찰에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여성 응답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의 두 질문(5번과 6번)은 카이 스퀘어와 크레이머 V 테스트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아래 표7 참조)

(표7)

구분	경찰에 다양성 전담부서가 있다면 경찰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인가			총합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성별	무응답	1 50.0%	0 0.0%	1 50.0%	2 100.0%
	남성	0 0.0%	17 60.7%	11 39.3%	28 100.0%
	여성	1 2.4%	32 78.0%	8 19.5%	41 100.0%
x ² (p)		21.418(<0.001)***			
Cramer's V(p)		0.388(<0.001)***			

p* < 0.05, p** < 0.01, p*** < 0.001

질문7. 연령과 경찰의 형평성과 다양성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의 상관관계

이번 질문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경찰이 다양성과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역시 연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0대 응답자의 경우 경찰의 노력에 대해 총 5단계 척도 중에서 보통(75%) 및 잘함(25%)으로 경찰의 성과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28%와 48%가 경찰의 다양성 및 형평성 노력을 부정적(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는 선행연구(Correia et al, 1996; 류준혁, 2012; 황의갑, 2013)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편이나, 본 연구의 설문 표본 규모가 작다는 점이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카이 스퀘어 테스트 및 크레이머 테스트 역시 모두 기준치 아래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래 표8 참조)

(표8)

구분	경찰의 형평성·다양성 촉진에 관한 전반적 성과 평가						종합
	무응답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잘함	훌륭함	
무응답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19세 이하	0 0.0%	0 0.0%	0 0.0%	9 75.0%	3 25.0%	0 0.0%	12 100.0%
20~29세	0 0.0%	1 4.0%	7 28.0%	10 40.0%	6 24.0%	1 4.0%	25 100.0%
30~39세	2 13.3%	0 0.0%	6 40.0%	3 20.0%	4 26.7%	0 0.0%	15 100.0%
40~49세	0 0.0%	0 0.0%	1 12.5%	7 87.5%	0 0.0%	0 0.0%	8 100.0%
50~59세	0 0.0%	0 0.0%	0 0.0%	3 42.9%	4 57.1%	0 0.0%	7 100.0%
60~69세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70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chi^2(p)$	99.729(<0.001)***						
Cramer's V(p)	0.530(<0.001)***						

$p^* < 0.05$, $p^{**} < 0.01$, $p^{***} < 0.001$

질문8. 성별과 경찰의 형평성과 다양성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의 상관관계

동일한 질문을 성별과 관련하여 질문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남성 응답자의 71.4%가 미국 경찰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경찰의 성과에 대해 평균 이상(보통 46.4%, 잘함 25%)으로 평가한 반면, 여성의 70.7%는 평균 이하(보통 46.3%, 낮음 24.4%)로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는 잘했다는 평가도 24.4%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여성 응답자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낮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여성이 미국 사회에서 형평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여건 및 사회참여도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여성 역시 사회적 소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사회 역시 여전히 여성이 느끼는 경찰 및 법집행기관의 다양성 및 형평성 증진 노력은 다소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학적으로는 카이 스퀘어 및 크레이머 V 테스트 모두에서 모두 기준치 0.001 이하로 나타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9 참조)

(표9)

구분	경찰의 형평성·다양성 축진에 관한 전반적 성과 평가						총합
	무응답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잘함	훌륭함	
무응답	2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100.0%
성별	2	0	5	13	7	1	28
	7.1%	0.0%	17.9%	46.4%	25.0%	3.6%	100.0%
여성	0	1	10	19	10	1	41
	0.0%	2.4%	24.4%	46.3%	24.4%	2.4%	100.0%
$\chi^2(p)$			37.095(<0.001)***				
Cramer's V(p)			0.511(<0.001)***				

$p^* < 0.05$, $p^{**} < 0.01$, $p^{***} < 0.001$

2. 정성적 연구 및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단답형의 정량적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정성적 설문조사도 일부 진행하였다. 대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비록 심도 있는 인터뷰 수준의 개방형 질문과 응답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응답자의 의견을 얻어 미국 시민의 구체적인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량적 질문보다 정성적 질문이 분석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응답 내용을 수렴하여 수치화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시민권자이기는 하나, 응답자 중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ASC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비록 그들이 미국 국적이 아니거나, 단기 체류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 답변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기에 연구를 위해 모두 소개하기로 한다.

[개방형 질문 1번 및 답변]

질문1. 미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차별을 직접 받았거나, 편견 등으로 인해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서술하십시오

답변1.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저와 제 가족에게 무례한 태도로 말했다. 경찰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추측을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 30대 남성, 쿠웨이트 출신, 미국 시민권자

답변2. “시카고 경찰이 유색인종, 특히 흑인 거주 지역 등 빈민가 지역에 치안서비스를 덜 제공한다고 느낀다.”

- 4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3. “언어적 편견에 근거한 의심 및 무지함을 경험하였다.”
 - 40대 여성, 미국 시민권자, 인종 및 기타 정보 불특정
- 답변4.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였다.(백인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지당하지 않았다.)”
 - 20대 남성, 유학생, 포르투갈 출신, 인종 및 기타 정보 불특정
- 답변5. “여기에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내 거주지 전임 경찰서장은 엄청난 인종차별을 일삼았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였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증도 있었고, 이로 인해 일어난 여러 사건도 있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가고 새로운 경찰서장이 왔지만, 경찰에 대한 법적인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
 - 3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6. “개인적으로 경찰로부터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경찰관이 제가 범죄학 관련 학자인 것을 알고 나서야 행동이 달라졌다. 또한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경찰관이 부당한 수색을 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7. “차별적 반응”
 - 3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8. “경찰에게 제지당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무례하게 굴었다. 지역사회 모임에서 경찰관들이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한다. 또 경찰은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쏘서 죽이고 이미 체포된 상태의 사람을 죽인 전력도 있다.”
 - 5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9. “경찰관이 특정 인종이나 전과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경찰이나 법집행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 경찰에게 다가가기가 꺼려진다.”

- 3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10. “개인적으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11. “두 사람이 싸우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흑인 남성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지만 백인 남성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일을 보면서 나는 화가 났고 경찰이 흑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새삼 느꼈다.”

- 20대 남성, 루마니아 출신 백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12. “여성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목격하였다.”

- 5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13. “조지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경찰에 의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결국 목숨을 잃었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답변14. “나를 보호해야 할 경찰에게 보호 받지 못하고, 경찰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같음)

답변15. “외모가 다르면 대우도 달라진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다.”

- 10대 여성, 이집트 출신 미국 시민권자, 인종 정보 불특정

- 답변16. “누군가 불심검문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밖에 나가는 것이 매우 불안해졌다.”
- 10대 여성,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출신 국가 불특정
- 답변17. “한 남성이 우리집 뒷마당에 침입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우리 가족이 ‘수상해 보인다’ 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 20대 여성,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출신 국가 불특정
- 답변18.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도 없이 나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수색했다.”
- 20대 남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9.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로부터 교통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아마 그 경찰이 단속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단속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 30대 남성, 히스패닉계 유학생, 기타 정보 불특정
- 답변20. “내 동생은 공원에서 뛰기만 했는데도 ‘용의자처럼 보인다’ 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동생 피부색이 더 어두운 편이라 그런 것 같다. 또 동생과 나는 어리고 히스패닉계라는 이유로 제지당한 적이 있다.”
- 20대 여성, 에콰도르 출신, 히스패닉계, 미국·에콰도르의 이중국적 소지자
- 답변21. “나의 한 흑인 친구가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를 세우라고 저지당했다.”
- 30대 남성, 이집트 출신, 백인 유학생
- 답변22. “내가 여행 중이거나 다른 주(州)에 갈 때는 항상 겪는 일이다. 법 집행기관의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이 인종 차별을 겪는다.”
- 20대 여성, 콜롬비아 출신,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답변23. “나는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소수인종 노숙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뉴욕 경찰이 단속 건수를 채우려고 그럴 지도 모르겠지만, 피부색이나 경제적 지위 때문에 경찰관의 이런 행동에 취약할 수 있는 소수인종 가족을 둔 나로서는 여전히 걱정된다.”

- 10대 남성, 유학생, 흑인 유학생

[개방형 질문1번 분석 결과]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응답이 나왔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찰의 행동으로 인해 부당함을 느꼈다고 답해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계(흑인),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등 비(非)백인뿐만 아니라, 백인 응답자 역시 인종 차별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아, 미국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71명 중 23명이 인종 때문에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답해 약 32.4%가 경찰의 편견이나 인종 차별적 행동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21.1%)은 경찰로부터 차별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8명(11.3%)은 경찰의 부당함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인종적 구성을 살펴보면, 백인 8명(34.8%), 흑인 6명(26.1%), 히스패닉 5명(21.7%), 불특정 또는 기타 4명(17.4%)순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2번 및 답변]

질문2. 지역 사회에서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다양성과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을 알고 있는가? 있다면 서술하십시오.

- 답변1.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y,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을 위해 창설된 특별 대학)에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SNS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5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2. “시카고 경찰은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3. “지역사회와 워싱턴 주에서 소수인종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 7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4. “다양성에 중점을 둔 경찰 채용 프로그램을 본 적 있다”
- 3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5. “뉴스 기사 제목에서만 본 적 있다.”
- 4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6. “유색인종 여성을 특별히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7. “여성과 유색인종을 더 많이 채용한다는 내용의 경찰서 광고가 시내버스에 부착된 것을 본 적이 있다.”
- 4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8. “특정 계층을 더 많이 채용하려는 시도를 본 적 있다.”
- 5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시민권자
- 답변9.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는 피크닉 프로그램이 있다.”
- 20대 여성,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인종정보 불특정

답변10. “경찰에서 다양한 인종의 경찰관을 채용하고 있다.”

- 50대 남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11. “법무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 집행기관의 다문화주의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20대 여성, 파키스탄 출신, 아시아계 미국 시민권자

[개방형 질문2번 분석 결과]

이 질문은 실제로 미국에서 경찰의 긍정적인 다양성 관련 정책이나 홍보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전체 응답자 71명 중 15.5%인 11명만이 답변하여 다소 아쉬웠다. 결국 미국 시민들 대다수가 형평성이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여성 경찰관 신규 채용에 적극적(응답자 3명, 27.2%)이라고 하거나, 소수 인종을 적극 채용(응답자 4명, 36.4%)하고 있으며, 경찰이 시민과 함께하는 피크닉 행사(응답자 4명, 36.4%)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경찰의 다양성 관련 정책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질문3번 및 답변>

질문3. 지역 경찰이 형평성 및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어떤 개선이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가?

답변1.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 관행에서도 형평성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5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2. “가난한 지역에 더 공평한 경찰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 4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3. “무장 경찰은 줄이고 여성 경찰은 늘려야 한다.”
- 40대 여성, 인종 및 국가 정보 불특정
- 답변4.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5. “잘 모르겠다.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적인 것에서 오는 것 같다.”
- 4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6. “나에게 따로 다양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 20대 남성, 중국 출신, 아시아계 유학생
- 답변7.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경찰관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 30대 남성, 대만 출신, 아시아계 유학생
- 답변8.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편견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 20대 여성, 한국 출신, 아시아계 유학생
- 답변9. “암묵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 7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0. “암묵적 편견에 대한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 3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1.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적 관행 및 전통을 잘 융합하여야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2. “흑인 거주 지역을 과잉 단속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 4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3.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 30대 남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4. “단순히 다양한 인종의 경찰관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50대 여성, 미국 출생,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 답변15.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경찰의 혁신과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법 집행기관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사회의 피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 3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6. “피의자 검거 시에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트라우마 정보에 기반하여야 하고, 피해자 치료에 중점을 둔 대안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7. “경찰관들이 수준 높은 교육 및 워크숍을 받아야한다. 또 책임감을 가지고 법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8. “경찰관들이 범죄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 4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19. “성차별을 그만해야 한다.”
- 50대 여성, 미국 출생, 백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20. “법 집행 기관은 시스템 내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답변21. “더 많은 유색인종 및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활동 및 법 집행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22.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23. “평등함과 공정함”

- 10대 여성, 이집트 출신, 미국 시민권자, 인종 정보 불특정

답변24. “그냥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0대 여성, 미국 시민권자, 인종 정보 불특정

답변25. “경찰이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공무 집행 시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26. “지역사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답변27.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고용해야 한다.”

- 50대 남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28. “경찰이 경찰들의 재량권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평등하게 시민을 대해야 한다.”

- 20대 남성, 아프리카계 및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 답변29. “경찰관 개인이 시민이 필요한 것을 잘 이해하고, 근무 시
정직하고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관으로부터
압박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 20대 남성, 미국 출생, 히스패닉계 미국 영주권자
- 답변30. “인종이나 문화 등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 10대 남성, 미국 출생,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권자
- 답변31.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하다.”
- 20대 여성, 에콰도르 출신, 히스패닉계, 미국·에콰도르의 이중국적 소지자
- 답변32.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 10대 여성, 이집트 출신, 미국 시민권자, 인종 정보 불특정
- 답변33. “경찰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 답변34. “모든 경찰관이 바디 카메라(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해야 한다.”
- 30대 남성, 이집트 출신, 백인 유학생
- 답변35. “우리 지역의 경찰관은 한 가지 인종으로만 구성돼있다.
지역사회에 점점 다양한 인종이 많아짐에 따라 흑인, 히스
패닉,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의 경찰관이 필요하다.”
- 10대 남성, 자메이카 출신 유학생, 인종 정보 불특정
- 답변36. “형평성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 집행 기관 전체에 다양한 인종의 법 집행관을 채용함으
로써, 집행기관 내부에서부터 다양성을 수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대 남성, 미국 출생, 흑인, 체류자격 정보 불특정

답변37. “치우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체포해야한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체류자격 정보 불특정

답변38. “경찰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 1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39. “경찰에서 다양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이 단순히 단속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활 등을 통해 시민을 돕고자 노력했으면 한다.”

- 10대 남성, 미국 출생, 흑인, 체류자격 정보 불특정

답변40. “모든 인종, 민족, 성별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 20대 여성, 파키스탄 출신, 아시아계 미국 시민권자

답변41. “변화가 없다.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 10대 남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42. “나는 저지시티 경찰의 형평성 및 다양성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미국 시민권자, 인종 정보 불특정

답변43. “내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바라는 주요 변화는 범죄자 체포 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법정에서 동등한 판결을 받았으면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44. “커뮤니티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 커뮤니티와 확대하여 소통하여야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흑인 미국 시민권자

답변45. “모든 경찰관에게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경찰관이 이러한 정책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20대 여성, 미국 출생, 미국 시민권자, 인종적 정보 불특정

답변46. “경찰 내부에서 더 많은 문화와 다양한 인종을 지지하는 열린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이다.”
- 10대 남성, 미국 시민권자, 인종 정보 불특정

[개방형 질문 3번 분석 결과]

이 문항은 총 응답자 71명 중 46명이 응답하여 64.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질문은 미국 시민이 향후 지역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으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이 연구의 설문조사 표본이 범죄학 전문가와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에 종사하거나 이를 학문 분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대답을 하였지만 몇 가지 공통된 대답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응답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람을 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18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수 인종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9명), “경찰은 지역사회와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5명), “여성 경찰관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3명), “암묵적 관행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3명) 와 같은 답변이 있었다.

그 외에도 “부정적 관행을 바꿔야 한다.” “특히 흑인을 자주 체포를 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변화가 없다,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 “다양성과 형평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모르겠다,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다” “모든 경찰관이 근무 시 바디캠을 사용해야한다”는 등의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도 종종 있었다. (이상 모두 1명씩 응답)

다만, ‘바디캠 사용’ 응답과 관련, 현지 뉴저지주 근무 경찰관에게 알아본 결과,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시(市) 경찰에서는 이미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이러한 답변을 한 배경에는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경찰이 공무 집행 중 범인 검거 및 체포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종종 논란이 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답변을 한 응답자가 특별히 물리력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의 인종차별적 대우를 본적이 있냐는 내용의 질문1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 응답자가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정성(39.1%), 다양성(19.6%), 소통(10.9%), 여성 경찰관 채용 확대(6.5%), 기타 (17.4%) 순으로 응답해 **응답자들은 공정성(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다음으로 다양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및 토의

1.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의외로 인종과 경찰의 형평성 및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미국의 특성 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경찰활동에 대해 느끼는 형평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후술하겠으나, 결국 인종은 본 연구에서 특별히 유의미한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다만, 독립변수인 나이와 성별은 카이 스퀘어 및 크레이머 V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다. 연령과 성별은 미국 시민이 경찰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경찰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 경찰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 경찰에 다양성 전담부서가 있다면 범죄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경찰이 다양성과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한 평가 등 본 연구의 주요 질문에서 중요한 독립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종적이었던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경찰이 인종별로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s)’ 운동의 영향으로 흑인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흑인들의 여론이 과거 보다 달라진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그로인해 흑인 인권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 등 다른 소수민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시 특히 대두된 ‘아시아계 혐오 중단(Stop Asian Hates)’ 운동 등이 힘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응한 흑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종적 배경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목격하거나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여 여전히 경찰 형평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량적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 1번의 경우 흑인 26.1%, 히스패닉계 21.7%에 이어 백인 응답자들도 경찰의 불공정한

평거나 대우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34.8%)고 답하여 불공정한 대우 및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앞에서 언급하였던 연구 질문 및 연구 가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연구 질문 관련

1.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시민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경찰 활동에 만족하는가,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에 만족하는가?

—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법 집행에 비교적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 시민들이 지역 경찰의 치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만족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정성적 조사에서 나온 답변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경찰과 관련된 형평성 및 다양성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방형 질문 3번 문항의 답변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모든 사람에게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소수인종을 경찰관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 등의 답변처럼 미국 시민들은 경찰관의 태도와 경찰관서가 더 공정하고 다양해지기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미국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미국은 건국 이래 오랜 다양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에 목말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형평성과 다양성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차근차근 입법 및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지금부터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 가설 관련

1. 미국의 일부 다문화 및 소수인종 시민들은 지역 경찰의 경찰 활동의 형평성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찰 및 경찰활동의 형평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시민들은 경찰관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그렇다. 많은 응답자가 불법 불심검문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은 부당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본 연구에 있어서는 백인 응답자 상당수 역시 경찰로부터 불평등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직접 경험 내지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미국의 일부 다문화 및 소수인종 시민들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활동과 태도에 대해 불공평함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 아니다. 일부 소수 인종이 부당함을 느낀다고 해도 모든 소수 인종 더 많이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2. 연구의 한계

첫 번째로, 방법론적으로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정성적 질문에 대한 보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대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긴 했지만 온라인 조사도 병행했다면 더 풍부한 1차 데이터(Raw Data)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 시, 인종의 비율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다른 인종보다 백인이 더 많이 참여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연구 당시 특별히 인종적 분포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표본 샘플을 특별히 인종별로 구분하지 않는 한, 연구 초기부터 인종적 비율 및 분포도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설계할 때 계획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면, 시민과 경찰관들의 인식에 대한 대조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시민과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인종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선별, 양국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등을 대조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위에서 언급하였으나, 비교적 다문화 및 다인종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역시 경찰 활동, 경찰관의 태도, 경찰관서의 정책 등과 관련, 무결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의 규모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완벽한 다문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면,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10대 및 20대에서 경찰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미국의 경찰 및 그 활동에 대해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결국 이들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사회로 유입되어 미국 사회의 중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경찰관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많은 응답자들이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이민자 출신 경찰관을 일부 수용하는 것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다.

한국 경찰도 일정 조건 하에 귀화자 중 일부를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경찰관을 더 많이 채용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유연한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설문 답변 중 “단순히 다양한 인종의 경찰관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답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민자 출신 경찰관을 더 많이 뽑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고, 다문화에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범죄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To Protect and To Serve”이다. 조금 의역을 하자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경찰이 존재한다’ 는 의미가 아닐까.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강한 미국에서는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Protect’의 의미가 경찰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 경찰의 공무집행이 종종 과잉진압 논란에 빠지는 것은 결국 법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Protect)에 더 집중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Serve)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한국 경찰은 국민에 봉사하는 데 있어 미국의 경찰보다 더 강점을 가진 측면도 있다. 한국 경찰의 작금의 현실은 일제 강점기와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결코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경찰이 공무집행이나 대(對)국민 서비스를 할 때에, 어느 정도 굳건하고 강력한 공권력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양질의 법집행과 치안 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소 ‘Serve’에 집중된 한국 경찰의 역할에 이제 ‘Protect’, 즉 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힘을 부여해야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미래의 경찰상(像) 혹은 사회상은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즉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공권력의 강화 및 시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종합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 경찰의 다양성 및 형평성에 대한 미국 시민의 만족도 정도를 고려할 때,

첫째로, 대국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국 경찰은 본격적으로 열릴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한국 국적의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및 귀화자, 이민자 등 다문화 사회의 시민에 대해서도 함께 보호하되, 한편으로는 봉사하는(To Protect and To Serve) 자세로 근무하는 태도를 견비해야할 것이다. 단어의 느낌이 주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시민들이 결국 가장 경찰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뽑은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기도 한 형평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임을 상기할 때, 우리 경찰도 형평성을 지키고(To Protect Equity), 또 다양함을 수용하는 것(To Serve Diversity)이라고 바꿔말해도 과장은 아닐 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이 담보된 상태에서 우리 경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문화 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역시 외국인 인구 200만 명을 훌쩍 넘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및 다인종 사회에 적합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의 시민들도 다문화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및 다국적 기업, 외국인 고용업체 등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풍부한 경험과 유연한 사고를 갖추고 다양성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경찰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로,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오랜 다문화·다인종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 사회의 시민들조차 경찰의 형평성과 다양성에 아직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가치는 결코 단기간에 그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디 외국인 및 외국문화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경찰의 노력, 시민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K-컬처’(K-Culture)의 대유행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저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족하나마,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다문화 사회 형성과 이에 맞는 경찰활동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V. 참고 문헌

1. 국내 참고자료

- 장현석. (2013)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3년 여름 pp. 213~236
- 장현석. (2014)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제54호(2014): 239-262
- 유재두. (2018) “시민이 인식하는 경찰의 역할과 경찰 신뢰의 관계: 경찰관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 강지현. (2016)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의 순찰, 대응, 검거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 류준혁. (2012)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38(3): 171-200.
- 황의갑.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민들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2(4): 411-434.
- 김순석. (2010) “일반논문 : 다문화사회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략” 한국경찰학회보 12.2 (2010): 65-88.
- 선계훈. (2016) “체류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문화·환경적 요인 연구 - 외사경찰관들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 제 16권 제5호, pp. 377-402.
- 강정향. (2019)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정책 방향 모색”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2019.07 (2019): 299-356.
- 곽형곤. (2021) “시민의 행동에 대한 경찰관의 부정적 인식과 적극적 경찰활동의 위축”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제85호(2021): 1-28,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1>

2. 해외 참고자료

Weitzer, R., & Tuch, S. A. (2004). Racially biased policing: Determinants of citizen perceptions. *Social Forces*, 83(3), 1009–1030.

Chu, D, Song, J. H. L., & Dombrink, J. (2005). Chinese immigrants'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15(2), 101–114.

Chu, D. C., & Huey-Long Song, J. (2008). Chinese immigrants'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Toronto, Canada.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1(4), 610–630.

Nuño, L. E. (2017). Hispanics'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Police.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8(2), 155–168. <https://doi.org/10.1080/15614263.2016.1195015>

Todak, Natalie and Jessica Huff (2020). "Investigating Perceptions of Race and Ethnic Diversity Among Prospective Police Officers." *Police Practice &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Retrieved August 10, 2021].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614263.2020.1739477>

Barton, H., & Beynon, M. J. (2015). Do the citizens of Europe trust their police?.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services*, 4(1), 65–85.

Ren, Ling (2022). "Racial/Ethnic Connection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Equal Treatment Matter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64(3): 49–70. doi: 10.3138/cjccj.2021–0050.

Smith, J. (2021). Police Use of Force by Ethnicity, Sex, and Socioeconomic Class.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 Research*, 45(2), 15–25. <https://doi.org/10.1111/jssr.12345>

Tessler, H., Choi, M., & Kao, G. (2020). The anxiety of being Asian American: Hate crimes and negative bi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636–646.

Watson, M. F., Turner, W. L., & Hines, P. M. (2020). Black lives matter: We are in the same storm but we are not in the same boat. *Family process*, 59(4), 1362–1373.

Correia, M. E., Reisig, M D., & Lovrich, N. P. (1996). Public Perceptions of State Police: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and Contextual Variab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 17–2